

[기획]

퍼펙트 論述

언어논술 실제-정보화의 빛과 그늘

영역 넓고 복잡다단... 심층·다면적으로 접근하라

정보화의 빛

개인도 '1인 미디어'로 아젠다 설정

'정보화 사회'의 전도사인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은 다양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근거로 하는 아주 새로운 생활양식을 가져온다. 또한, 대다수 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새로운 생산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중략) 과거의 기준에 도전하는 새로운 문명은 관료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역할을 극소화시키며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전자적인 경제 체제를 형성케 한다. 이 문명은 정부를 보다 단순화시키고 효율화시킬 것이며, 오늘날 어떤 정부보다 더욱 민주적인 정부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해 아주 새로운, 그러면서도 아주 소망스러운 사회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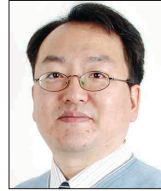
앨빈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이 이처럼 미래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정보화 사회'의 요체인 '정보'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을 쫓아 권력을 쥐게 되었다. 반면에 '정보화 사회'에는 '정보'를 쫓아 권력을 쫓는다. 그런데 '자본'은 이윤은 창출할지언정 복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는 '무한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무한공유'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도 '무한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견해와 달리 부정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사회'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정보화 사회'가 진보의 결과라기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진화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 사회'는 기술진보의 결과라기보다는 자본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이해나 요구를 무시하거나 이에 위배될 경우 자본이 이를 묵과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분가지다. 더구나, 이때 '정보화'는 자본이나 자본과 결탁한 권력이 대중들을 통제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미셸 푸코는 이런 상황을 '판옵티콘'에 빗대서 표현한 적이 있다. 판옵티콘(Panopticon)은 '모두 본다'라는 뜻으로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프리 벤담이 고안한 원형감옥이다. 이 감옥에서 간수는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죄수는 자신의 행동을 간수가 늘 보고 있다는 전제 하에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정보화'는 바로 이와 같은 권력구조를 좀더 교묘하게 만들어 내는 중요한 수단 이 되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가 현실화 된 것이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을 '일정한 양의 물리적 힘'이라기보다 오히려 살아 있는 모든 유기체와 모든 인간사회를 관통하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알아서 앞으로 가는 현대'라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가 모두 드러나 있고, 자신은 권력자를 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쫓아 자제를 자신을 순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손정규

푸른1318논술연구소 언어논술 강사



동영상 강의 www.nonsul.1318hi.com



'목도리녀' '개똥녀' 사건은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 및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 제기라는 긍정적 측면과 이에 따른 특정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줬다.

Table with 2 columns: 빛 (Light) and 그늘 (Shadow). Rows include '앨빈토플러 '제3의 물결'', '정보·권력의 무한공유', '1인 미디어'의 출현, '목도리녀'의 감동, '조지 오웰 '1984년'', '자본의 대중통제 유용', '네카시즘적 댓글 문화', '개똥녀'에 대한 공격.

정보화의 그늘

자본 결탁한 권력의 대중통제 수단

물론 현대의 '전자 판옵티콘'은 벤담의 판옵티콘과는 질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보화' 특성상 역(逆)판옵티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시자만 대중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피감시자도 감시자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틀 수 있다. 영국의 '가디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인터넷, 대통령을 뺀다'라고 보도 하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의사소통 수단의 통제를 정치·사회적 권력자가 독점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선거결과가 나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인터넷이 권력자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것은 대중이 스스로를 권력자에게 종속시키지 않고 주체적으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1인 미디어'의 출현은 이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보도활동은 전문직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정보 생산·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여건에 따라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정보생산이 언론사와 같이 정보유통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이제 개인은 단순히 정보통제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상환에 따라서 어떤(agenda), 즉 사회적 의제를 설정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른바 '개똥녀 사건'이다. 과거 같으면 문화비행선을 얘기를 한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사건'의 수준에까지 올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또다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과거 권력자에 의해 저질러졌던 프라이버시침해가 이제는 개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댓글 저널리즘'이라고까지 얘기되는 댓글문화는 프라이버시침해를 넘어서 대상을 '공격'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댓글문화'는 네카시즘(Necarthism)과 매카시즘(McCarthyism)의 합성어로 인터넷에서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비난을 유포해 여론을 선동하는 일을 매카시즘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정보화'는 단순히 아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백인백색이며, 문 제적 현상도 정태적이지 않고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학들도 '사이버세계의 유용성'에 대해(2004년 이화여대) 물은 곳이 있거나 하면 '데이트 스코그 현상'(2004년 연세대)에 대해 물은 곳도 있다. 또 송문적인 것을 물은 경우도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여론주도 현상에 대해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봐야하느냐는 아주 상세한 것까지 묻고 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이에 따라 자기견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다음 두 글은 정보 사회의 미래에 대해 상이한 전망을 담고 있다. 두 글을 참고하여 정보 사회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200자 내외, ±120자 허용)

(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비로소 정책의 의사결정에 직접 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단번에 열어 놓았다. 필자는 얼마 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큐브 케이블(Qube cable) 텔레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일렉트로닉스에 의한 주민 총회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초 연설을 하는 영감을 느꼈다.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참가하고 방송으로 당당히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었다. 버튼을 이용해서 의장에게 의제의 다음 항목으로 넘기도록 요청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내일의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가장 원시적인 징후에 불과하다. 고성은 컴퓨터, 인공위성, 전화, 유선TV, 새로운 투표 기술,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교양 있는 시민이 스스로 많은 정책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 앨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석 어디에서나 내려다보고 있었다. 포스터는 바로 맞은편 집 앞에도 붙어 있었다. 검은 눈이 윈스턴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며 '빅 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울려퍼졌다. 저쪽 길 한 모퉁이에 모서리가 찢어졌던 또 하나의 포스터가 바람에 필력이며 '영사(英社)(INGSOC : England Socialism, 영국 사회주의의 새로운 약어)란 낱말을 가려내 버렸다. 말리시 웨일링턴가 지붕 사이로 스치며 쇠파리처럼 잠시 머뭇거리다가 선히 비행하여 날아가 버렸다. 사람들을 침묵으로 감시하는 경찰이었다. 그러나 이런 순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사상 경찰(思想警察)이었다. 윈스턴의 등 뒤에서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 텔레스크린이 지껄이고 있었다. 이 텔레스크린은 저쪽에서 오는 걸 방송하는 동시에 이쪽 것을 전송한다. 윈스턴이 내는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모두 걸려든다. 그뿐 아니라 이 금속판의 시계(視界)안에 들어 있는 한, 윈스턴이 하는 행동도 다 보고 들린다. 또한, 언제 감시를 받는지 알 수도 없었다. 사상 경찰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한 개인을 감시하는가는 단지 추측밖에 할 수 없다. 사상 경찰이 모든 사람을 언제나 감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떻게 그들은 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감시의 선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는 모두 들리고 감찰할 때 외에는 그의 모든 동작이 세밀히 감시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살아야 했고 또 그게 본능적으로 습관화 되어 있었다. - 조지 오웰, 『1984년』

(나) 달한 참유리에 비친 바깥은 추위 보였다. 거리 저편에서 한 줄기 바람이 먼지와 종이조각을 흩날렸다.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지만, 여기저기 붙어 있는 포스터 외에는 색채란 게 없어 보였다. 검은 수염의 얼굴이 광망하기 좋은 구석구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223-1120, 5120

LC타워(주)
첨단지구 LC타워
(☎)972-8004, 8004-7154-6986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234-8216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광주지도 책 판매개시!!
(☎)529-1409

효성공인중개사
대지매매 (교회, 원·투룸부지)
(☎)521-6024

토우드공인중개사
토지
(☎)62)384-1995

다우공인중개사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523-8114

법원경매
지지경매컨설팅(주)
(☎)062-226-0047